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교실, 암연구소#

김광현 · 정필상 · 최영석
박현민 · 박재갑#

저자들은 1989년 9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서울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받은 30 명의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조직으로부터 explant method를 이용한 세포배양을 시도하여 후두암 3례와 하인두암 1례에서 primary culture에 성공하였다. 배양된 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포주 특성분석을 시도하였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의 형태학적 특성을 관찰하였고, 세포의 doubling time과 plating efficiency를 포함한 세포의 성장특성을 관찰하였다. 유세포계측을 이용하여 염색체의 ploidy 및 S-phase fraction을 분석하였고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법으로 cytokeratin의 단세포항체인 CAM 5.2, CK 1, CK 19, CK 8.13의 발현양상을 분석하였다. 종양의 발생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세포 부유액(10^7 cells/0.1 ml)을 각각 5마리의 nude mouse의 배부에 피하로 주사하여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 종양조직의 병리조직학적 특성을 원래 환자의 병리 소견과 비교하였다. Restriction fraction-length polymorphism(RFLP) method를 이용하여 DNA fingerprinting을 하였다. 이상의 특성분석으로 4개의 후두 및 하인두 편평상피암 세포주를 수립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25

선양낭성암에서 Argyrophilic Nucleolar Organizer Regions 및 증식지수와 예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타액선에 발생한 선양낭성암의 예후인자중 병리 조직학적 형태는 같은 암종내에서도 세가지 형태가 혼재하여 예후판정에 있어 객관성이 적다. 최근 argyrophilic nucleolar organizer regions(AgNORs)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세포의 증식능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증식지수(proliferation index) 등과 유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 저자들은 최근 10년간 경험한 선양낭성암 19례를 대상으로 AgNORs의 표현양상 및 증식지수와 병리조직학적 형태 및 재발 또는 원격전이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1) 타액선에서의 양성종양과 선양낭성암 간의 AgNORs수는 양성종양 2.06 ± 0.53 개, 선양낭성암 5.80 ± 1.88 개로 선양낭성암에서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2) 재발 및 원격전이가 없었던 8례의 AgNORs수의 평균은 4.98 ± 1.51 개이었고, 재발 및 원격전이가 있었던 예는 6.39 ± 1.96 개이어서 재발 및 원격전이가 있었던 예에서 AgNORs의 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3) AgNORs의 평균수와 증식지수의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768$, $P < 0.01$).

이상의 결과로 선양낭성암에서 AgNORs의 수는 종양세포의 증식능을 어느정도 대표하며 화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증식지수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AgNORs 및 증식지수는 타액선에 발생한 선양낭성암에서 제한적 예후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26

Thallium-201 주사를 이용한 갑상선 결절의 진단

전남의대 외과학교실, 핵의학 교실#

소병준* · 윤정환 · 제갈영중 · 범희승#

갑상선 결절의 치료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